

제지 B2B 사업 참여업체 68% 증가

한국제지공업연합회는 페이퍼마켓(PMP)의 회원사가 2006년말 기준으로 564개사에 달해, 2005년의 336개사에 비해 68%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페이퍼마켓을 통한 B2B 전자상거래 규모는 7568억원으로 2005년 6866억원에 비해 10% 증가했으며 온라인B2B자금 이용 규모는 64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269억원에 비해 141%이상 증가한 것으로 안전한 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B2B보증으로 발급된 금액은 2005년 147억원에 비해 93% 늘어난 283억원에 달했으며, 이 금액은 주로 결제대금이나 외상매출 담보용으로 활용됐다고 전했다.

무림페이퍼 · 무림SP 무림사랑나눔미 봉사단 발족



무림은 지난 3월17일 오전 11시30분부터 진주공장 대강당에서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단 '무림사랑나눔미'의 발족식을 가졌다.

김석만 부사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심영민 사원(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총무파트)과 정미은 사원(무림페이퍼 본사 경영혁신팀 공정개선센터)의 대표단원 선서에 이어 부단장인 박인섭 진주공장장이 4개 봉사팀 대표들에게 봉사리더 임명장을 수여하고, 단장인 김석만 부사장이 봉사단기를 전달받는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봉사단은 2개팀으로 나뉘어 진주복지원과 노인전문요양원에서 3시간 30분에 걸친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진주공장으로 복귀,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시간을 가졌다.

'무림사랑나눔미'는 분기별 1회의 헌혈활동, 문화재 정화활동, 긴급재해복구활동 등을 펼치며,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봉사단 산하 4개팀들이 각각 독거노인 지원, 노인요양원 노인수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남강정화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봉사단 발족을 통해 무림은 그동안 진행해오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더욱 힘쓰는다는 계획이다.

무림페이퍼, MFC지 판촉물 제작



무림페이퍼가 지난 2월말 MFC지 홍보를 위해 고객용 판촉물을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판촉물은 수첩과 메모장 2종류이며 수첩은 네오그랜드보드SE와 네오플러스(미색)를, 메모장은 네오플러스(백색)를 사용했다. 판촉물은 무림의 컬러인 블루와 그린을 이용해 깔끔하고 산뜻한 색상과 함께 한 손에 잡히는 아담한 크기로 디자인, 활용도를 높였다. 제작에 사용된 네오플러스는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도가 높아 단행본 및 부교재 시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무림페이퍼, FSC 인증취득

무림페이퍼는 지난 3월 중순 국내 제지업체 중 처음으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국제 NGO 단체인 FSC가 환경보전을 위해 FSC 인증을 받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제품에 한해 국제 공인 인증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FSC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세계적으로 4330개 이상이다. 제지업체가 FS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종이 제조과정에서 일반 펄프에 비해 고가인 FSC 인증을 받은 목재 펄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원시림 무단벌목 및 유전자변형 목재 펄프 사용에 따른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들은 모든 종이 제품에 대해 FSC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FS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림페이퍼측은 "FSC에서 규정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준에 맞춰 종이제품이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FSC 인증 획득으로 네오아트 SE, 네오스노우하이트 등 대표 제품들에 FSC 인증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타사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현재 70여개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

는 수출의 판매량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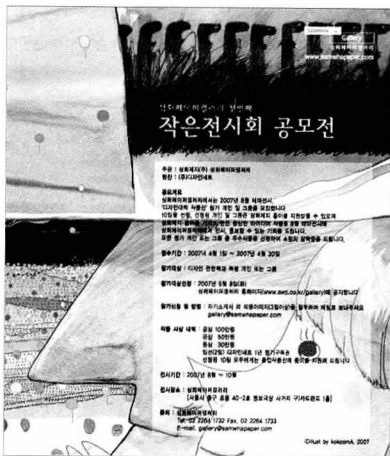
최우식 대표, 윤리경영 서약식 참가



최우식 이엔페이퍼 대표이사가 지난 3월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7년 윤경포럼 세미나-CEO서약식'에 참석했다. 윤경포럼은 '윤리경영이 경쟁력'이란 모토 아래 2003년 12월 출범한 다자간 포럼이다. '신뢰 한국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표어 하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내 주요기업 60여명의 CEO가 참여해 윤리경영에 대한 국제규범을 수용한 선언문 '우리의 다짐'과 관련된 12대 실천원칙을 공표했다. 2005년부터 매해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참가한 이엔페이퍼는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삼화제지, '디자인대학 작품전' 공모

삼화제지(주)(대표 김연호)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07년 세 번째 테마전시회인 '디자인대학 작품전'을 위한 '작은전시회 공모전'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작은전시회 공모전'은 디자인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개인 또는 그룹의 참가신청을 받아 1차로 총 10팀을 선정하여 삼화제지 종이를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 작품을 제출하도록 한 후 우수작품 다섯그룹을 선정,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등 소정의 장학금과 디자인넷 1년 정기구독권 등을 지급하게 된다. 공모전 1차에 합격하여 아이디어 작품을 제출한 개인 및 그룹에게는 8월에 계획중인 테마전시회에서 본인들의 작품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졸업작품전 등의 행사시에 무상으로 종이 제공된다. '작은전시회 공모전' 참가자격은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 개인 또는 그룹으로 신청은 자기소개서와 작품이미지(3점 이상)를 삼화제지(주) 갤러리(gallery@samwhapap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삼화제지(주) 홈페이지(www.samwhapaper.com/www.swp.co.kr)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삼화제지(주) 갤러리(02-2264-1732)에 문의하면 된다.

북미 3대 크라프트지 생산업체 가격인상

북미 3대 크라프트지 생산업체들이 최근 톤당 40~50달러 수준의 가격인상을 발표했다.

Longview Fibre사는 Unbleached Semi-Extensible 'TEA-Kraft'에 대해 지난 3월15일부터 톤당 50달러를 인상했으며, 지난 가을부터 시작한 Sack Kraft Paper의 톤당 40달러 가격인상도 마무리했다. Premium 1사도 Shipping Sack Paper 지종에 대해 4월1일부터 톤당 40달러의 가격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apStone Paper and Packaging Corp.도 Multiwall 지종에 대해 톤당 40달러, Bag and Sack Paper지종에 대해 톤당 50달러의 가격인상을 계획 중이다. Longview Fibre사를 포함한 위의 3사는 북미 크라프트지 생산량의 46%에 해당하는 250만톤의 크라프트지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북미의 크라프트지 가격인상은 수요증가와 공급부족, 우드칩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2006년 종이·판지 총생산량 증가

일본의 2006년도 종이 생산량은 총 1906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0.9% 증가한 반면 판지 생산량은 1204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이와 판지의 총생산량은 3110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0.5% 증가했다.

이처럼 종이·판지 생산량이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경기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종이와 판지의 수요도 감소하고 있으며, 기상악화도 수요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종이부문은 포장용지를 제외한 모든 지종의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판지부문에서는 백판지의 생산량 감소가 크게 두드러졌다.